[제목]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눅19:11~27)
[일시] 2014년 9월 28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23장 만 입이 네게 있으면, 찬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 514장 일어나라 먼동튼다
PW: 믿음, MIW:마지막 기회　가주어: 착하고 충성된 종
T.S: 믿음이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알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1. 서론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지간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인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적으로 치유를 받든, 진급을 하든, 취직을 하든,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며,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접수한 상태에 있고,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능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우주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즉시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2. 문제제기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주인으로부터 한 므나씩을 받은 열 명의 종들이 각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에게 어떻게 결산하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즉 어떻게 해야 본전을 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장사를 해 보는 종들이 과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는 혹 장사를 제대로 못한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재교육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잘못했다고 그 종을 **단숨에 내어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2)청중적 접근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지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자신에게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은 바른 것일까요?

3)본문문제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A.D.30년경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을 뱁새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문제발생원인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귀인'입니다. 그리고 이 귀족은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종 열 명을 불러 한 므나씩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들이 과연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종이란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킨 일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인의 말에 열심히 일할 뿐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결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5)문제 심리묘사

"주인님, 차라리 우리더러 굶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껏 쳐주어봤자 3~4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인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사업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사업을 하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사업을 시키려면, 좀 더 많은 투자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시든지 해야 하지 않나

요? 그리고 최소한 장사하는 법 정도는 가르쳐주어야 하지 않나요? 어찌 단 한 번에 장사하라고 몰인정하게 대하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좀 뚝뚝하고 잘 난 사람이나 경험이 풍부한 종들에게 시키시고 우리와 같이 어리숙하고 좀 덜 떨어진 종들에게는 시키지 마십시오."

3. 문제해결

1)인간의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종들은 주인이 시킨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주어진 한 므나가 사업하기에 너무 작은 사업자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장사하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 합니다.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충성되어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장사가 잘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

가. 주인은 누구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늘에 가셨다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있으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체를 입으신 후 12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당시 사람들의 오해와 결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중간에 과도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주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중의 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고, 자신의 우상은 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가지만 곧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훗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겨진 구원받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과 삭개오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되신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과도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은 후에 곧바로 죽는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재림의 시기를 늦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을 빌리자면, **주인은 분명 "더디" 오실 것이고, "오랜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삭개오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날마다 흰 옷 입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은 자신의 열 명의 종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면서 장사하고 있으라 명령하였습니다.

다. 주인은 왜 자신의 은전 므나를 종들에게 맡겼을까?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그냥 가도 될 것인데, 주인은 왜 굳이 종들에게 한 므나씩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하였을까요?

첫째, 만약 주인이 돌아오는 기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들은 자신이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장사도 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돌아온 주인의 결산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주인이 과연 무슨 의도로 열 명의 종들에게 한 므나씩을 주며 장사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잠시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과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충성도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말에 충성했던 종들의 신분을 왕의 신분으로, 즉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그들이 다스릴 마을을 떼어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그때까지는 자신의 종들이 시킨 일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왕이 되어 돌아올 때에는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왕의 신분을 줄 터인데, 그럴려면 과연 어떤 종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함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1차적인 이유는 죄값을 자신이 치르지 않더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늘왕국에 들어가되 거기에서 어떤 자가 왕노릇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마련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며, 기왕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의 시작부분에서 삭개오의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회개가 자기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전까지 섬기던 신은 돈 즉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삭개오는 돈은 벌었다해도, 그만 동족을 잃게 되었고 신앙을 잃게 됨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외톨이가 된 후에라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더 하늘에 마련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그럼, 저 천국에는 어찌하면 들어가지? 그래 이 세상의 것보다도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지. 그럴려면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는 곧바로 돈우상을 버리는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가 갚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회개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 어떤 종들이 천국에서 왜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나?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종들은 책망을 받아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조차도 빼앗기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의 단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열 명의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동안에 너희들은 장사하라(사업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열'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충분하다, 충분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 처녀 비유,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 므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장사하라(사업을 하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명령법, 중간태, 부정과거, 2인칭,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가 '중간태'**라는 것이며,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으며, 그 중간에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헬라어 동사에만 있는 것으로 주어가 행한 행동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명령법에 있어서는 그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이면 한 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현재이면 여러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돌아올 동안에, 너희는 오늘이 나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즉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너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희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해 보거라."

그러나 다른(헤테로스, another) 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은 율법에 갇혀 있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혹시 주인의 돈을 잃어버린다면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려 3~4달동안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3~4달기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로 넉 달 농사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주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추수해야 합니다. 그때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부지런히 장사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 하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 하는 장사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배의 몫을 남긴 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2배의 몫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2배를 남긴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주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분량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로 알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게으름에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한 분임을 알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가 실패

하면 실패했노라고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과정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했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축복받은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한다면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마저 빼앗기도 말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주인이 선한 분임을 그대로 믿고, 어떠한 명령이라도 충성되이 순종했던 종들은 갈수록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이번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일을 정할 때에도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장 자신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해도 결코 사탄마귀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첫째, 전부 다 왕국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으므로, 이전에 그들은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 곧 '아들의 신분'이 되었고, 이어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신분' 즉 '왕노릇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청중의 더 큰 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당장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이 남기는 복을 손에 쥘 뿐만 아니라, 장차 왕국에 들어가서는 여러 고을들을 다스리는 일 즉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계5:9-10 그들(4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당신께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 10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왕국)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아서도 아니 됩니다. 또한 또 다른 한 종처럼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다른 이유로 변명해서도 아니 됩니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에게 합당한 사명과 은사를 찾으셨습니까?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셔 왕노릇할 자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준행할 줄 모르면서 어찌 하늘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없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졌다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일이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알고 충성하십시오.**

나. 결단의 축복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왕국에서 받을 축복으로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해서 얻을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급은 **지금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혹 그런 자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을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내게 맞는 일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혹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면 그 일에 무조건 충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훗날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왕국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고전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감사와 회개

주여, 우리더러 장사하라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종들이지만 우리가 하늘왕국에 들어가서는 왕노릇할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어 미리 준비시키려는 것인데, 우리가 게을렀나이다. 용서해주소서.

주여, 그동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주소서.

2)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우리도 열심히 장사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인되신 하나님을 나쁘게 여긴다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도 하늘에서 왕노릇할 준비를 하겠나이다.

3)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여긴 채, 불순종으로 나를 이끌던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맡겨진 일에 충성할지어다.

4)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로구나.

2. 주님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구나.

3.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 놓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4. 하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자로구나.

5.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며, 저 하늘왕국에 들어가서는 왕노릇하는 신분이 되는구나.

6. 모든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구나.